

# 죽도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2013 | 봄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물침칩(勿侵帖)



물침칩이란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한 지를 색출하기 위해 지역의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문서로 일종의 신원보증서와 같이 사용되었다.



# 녹두꽃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 2013 | 봄호



해미읍성 진남문 (사적116호)

### 표지설명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읍성은 전남 순천의 낙안읍성, 전북 고창의 고창읍성과 함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다.

02 기념관 화보

0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축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더욱 발전하는 2013년을 위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06 녹두칼럼  
백산대회의 실체를 찾아서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임형진

08 재단포커스  
2013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요 사업계획

13 동학농민혁명 역사 바로알기  
보은집회와 금구집회 -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16 인터뷰① 동행공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학교법인 신태인학원 이사장 박문희

20 인터뷰② 발굴 참여자유족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이어받아 3대에 걸친 구국운동을 전개하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최기주

24 동학농민혁명 인물열전  
전라도 동남부지역의 대표적 청년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인배 -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조재곤

26 만화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28 포럼회원 투고  
다시보는 배틀평야 - 정읍문화원 사무국장 이용찬

30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대상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혼을 찾아서 - 최성기, 이영근, 황다비 공저

34 동학농민혁명 도서관  
봉준이, 온다 - 이광재 지음

36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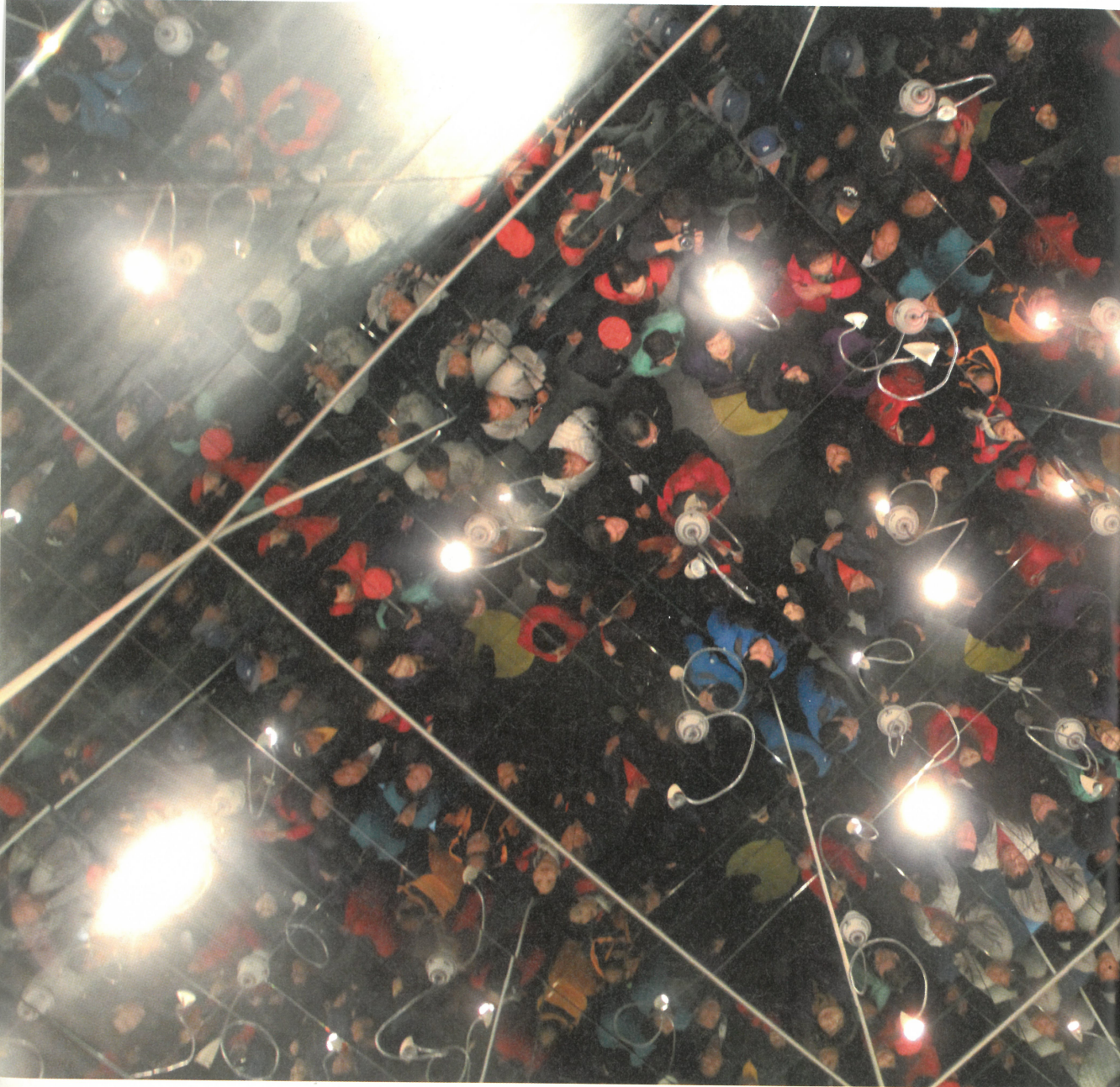
41 기념재단 사발통문  
재단소식 / 주요사업안내 / 행사 알림

44 네트워크 소식  
문화재청 '석대들전적지' 사적지 해체요구 거부 하

48 녹두꽃 날말피플

### 녹두꽃 통권 11호

발행일 2013년 3월 28일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행인 김영석 주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538-2896 팩스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제작 한솔디자인  
•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간지 『녹두꽃』은 창간호(2010년 가을호)부터 이번 호 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학농민군의 진혼

또 다시 봄입니다.

갑오년의 봄날. 동학농민군의

우레와 같은

함성소리는 하늘에 닿았을까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조형물 <진혼Ⅱ>에서는

그날에 모여든 농민군의 모습과

함성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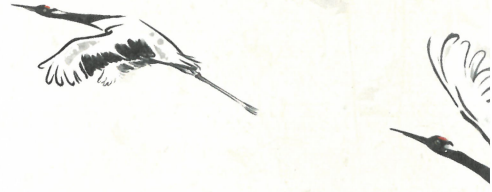
그 거친 진군의 함성소리는

너와 내가 모여 우리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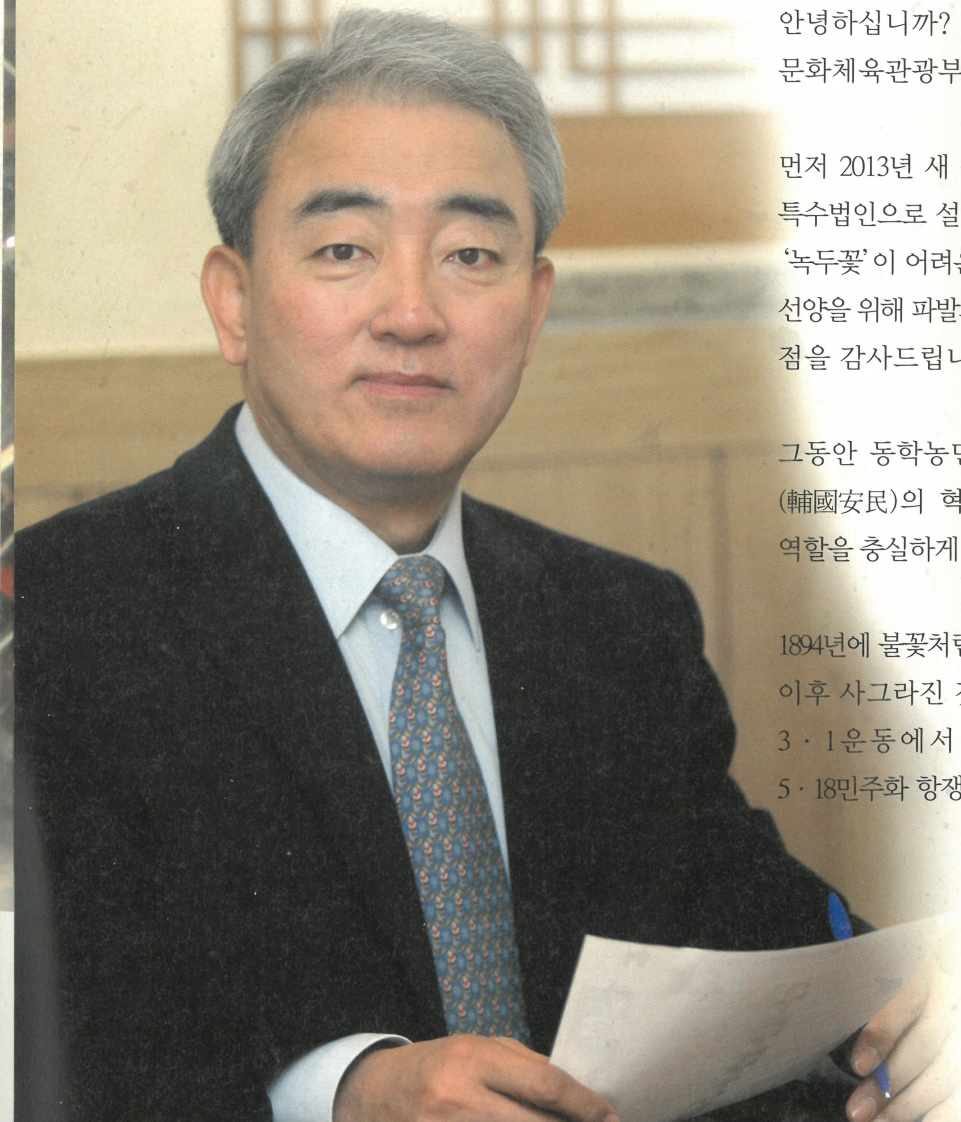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더욱 발전하는 2013년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입니다.

먼저 2013년 새 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지 4년을 맞이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녹두꽃’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동학농민정신 선양을 위해 파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점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의 혁명정신을 기념하고 연구·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1894년에 불꽃처럼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정신 이후 사그라진 것이 아닙니다.

3·1운동에서 4·19혁명으로, 그리고 5·18민주화 항쟁까지 압제와 폭거에 투쟁하



시대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 피와 땀으로 굳건히 다져진 대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곳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두 번째 육십갑자를 맞이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다시금 국민들의 마음속에 되살아나고 후세에 길이 전승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120주년을 맞이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는 해입니다. 역사의 기념물은 그 정신을 대변하고 표현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계획대로 건립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선열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추모의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을 위해 애쓰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녹두꽃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 백산대회의 실체를 찾아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임형진



동학농민혁명은 약 10개월에 걸쳐 전라도를 중심으로 거의 전국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혁명의 열기가 미친 파급과 역사적 영향력에 비해서 아직도 학계에는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백산대회이다. ‘앞으면 죽산 서면 백산’으로 유명한 백산대회는 동학농민혁명군이 최초로 형성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백산은 갑오년 1월의 고부기포 때부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이었다. 그곳은 비록 47미터의 나지막한 야산에 불과하지만 배들평야와 김제 만경평야가 아득하게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지역이다.

그곳은 동진강이 백산의 3면을 두르고 있는 배들평야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기에 이곳에서는 주변 관군의 모든 동향이 그대로 척후될 수 있는 천혜의 요새가 가능했던 것이다. 예로부터 백산은 서쪽으로는 부안, 남쪽으로는 고부, 동쪽으로는 태인, 금구, 원평, 전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남동쪽으로는 경사가 완만하나 북서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는 동진강이 흐르고 있어 주둔과 방비에 적합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1894년 백산 위에는 소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고, 좁은 길을 따라 산 위로 오르면 깊은 골짜기가 있어 수천 명이 숨어 있을 만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곳에는 해창이 있어 세곡 4천여 석을 저장해 놓았다.

백산은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충분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에 고부기포에서부터 전봉준에 의해 지휘부가 설치될 정도로 중요한 거점이었으며 혁명이 본격

적으로 불붙은 3월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다. 즉, 고부가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면 백산은 농민혁명군의 위상이 갖추어진 대회였기에 동학농민혁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백산대회는 그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테면 그 대회 일자가 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고증과 학계의 일치된 의견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당시에 발표되었다고 알려진 격문과 4대 명의 등도 위작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백산대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표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지영의 『동학사』에서만 등장하는 백산대회는 심지어는 그 존재자체가 의심되기도 하고 있다. 모두가 앞으로 학계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점에 대한 고증 및 추정만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백산대회의 존재 유무이다. 시일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료나 정황으로 보아 백산대회의 존재는 확실하다. 백산대회는 반드시 필요한 대회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을 추진한 전봉준에게 그에 동조하고 집결하는 군사들에게 대오를 편성할 대규모의 대회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유리한 곳을 백할 정도의 능력은 전봉준에게 있었을 것이다. 특히 무장포고문에 동의한 전라도 각 지역의 접주들과 농민군의 집결지가 필요했을 것이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회는 열렸어야 했다.



둘째, 정확한 대회의 일자는 언제였을까. 백산대회가 존재했다면 그 날자는 언제였을까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그동안 백산대회는 3월21일설부터 3월 25일설, 3월 26일설, 3월 27일설 그리고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설 등이 존재했다. 그러나 백산대회는 당시 동학농민군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보면 3월 26일 이후에 대회가 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열을 정비하고 군사적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간적 필요에 의해서 적어도 3월 29일까지는 열렸을 것이다. 이는 적어도 혁명에 동참한 34개 지역의 접주들이 집결할 시간과 그들을 무장시킬 시간 등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격문과 4대 명의 및 12조의 기율을 제정하고 전열을 정비해 혁명군으로서의 대오를 정리했을 3월 26일부터 “제중소의”라는 동학농민군의 인장이 사용된 29일까지로 넓게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대회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백산대회에서의 동학농민혁명군의 구성을 보면 고부기포와 무장기포, 그리고 백산대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개과정에서 지도부의 변화가 없었다. 동학농민군의 최고지도자인 전봉준을 비롯하여 최경선, 송대화 등이 고부기포를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이후 전개되는 무장기포와 백산대회의 최고지도부로 여전히 추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고부기포와 무장기포 그리고 백산대회까지는 독립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과정의 연속상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병력의 규모도 기록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대략 약 1만여 명 정도가 집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들을 통솔할 지휘체계는 물론 기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백산대회의 논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격문의 유무이다. 이 논란의 원인은 출처의 한계 때문이다. 그리고 무장기포에서 격문을 발표했는데 며칠 뒤에 바로 또 다른 격문을 발표했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점 등 때문에 그 존재가 의심되었던 것이다. 확실히 오지영의 기록에만 실려 있는 백산대회의 격문은 많은 궁금증을 유발한다. 특히 백산대회의 격문은 다른 격문이나 창의

문보다 지나치리만큼 현대적이고 사회과학적이라는 점이 그러한 의문을 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동학사』를 지어낸 소설이라고도 할 수 없다. 비록 오지영이 당시 천도교단 내에서 반대파의 주장을 반박하고 천도교연합회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쓴 글이었다고 하더라도 오지영 스스로가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농민군으로서의 처절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오지영은 초고 글을 쓰고 난 뒤에 『동학사』를 간행하기 전에 3년 동안 전국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현장 찾아다니며 답사하고 철저한 고증을 거쳤으며 『승정원일기』까지도 일일이 열람하고 대조했다고 한다. 또한 193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아일보에 「동학과 동학란」을 연재한 김상기 역시 백산에 동학농민혁명군이 모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당시에 백산대회가 존재했다고 확신한다면 대회의 성격과 대의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회취지를 밝히는 격문은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산대회의 격문은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해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척결과 밖으로는 외세의 구축이라는 반봉건적, 반외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교적 지배질서에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반봉건, 반외세 그리고 연합전선의 구축을 주장하는 최고의 격문이라고 평가된다.

결국 동학농민혁명군은 백산대회를 가짐으로서 본격적인 혁명군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대회를 통해 앞으로의 투쟁이 혁명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지휘체계를 갖추는 등 군율을 정비했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는 각 지역의 농민군들이 합류하여 황도현 전투와 황룡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주성에 입성했다. 백산대회는 이러한 농민군의 승리가 정당하다는 신호탄이었으며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의 전근대적 지배체제를 개혁하고 외세의 침탈을 물리치고 자주적 근대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단초적 역할을 한 것이다.



## 2013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요 사업계획

2013년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의 전기가 될 해로서 내년도 두 번째 60갑자를 맞이하여 성대하게 치러질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며 같은 해 착공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홍보사업, 연구조사사업, 기념시설 운영지원사업 등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그 정신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위대한 정신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홍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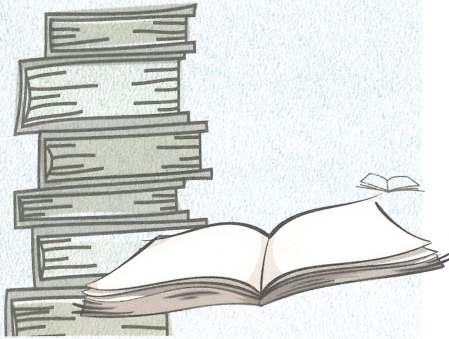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활성화 및 확산

- 동학농민혁명의 자주, 평등, 민주정신의 연구 및 전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와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전승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정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확인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운영

- 전국적인 규모의 기념사업 운영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 전파
-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현대적 계승 및 대중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기념홍보

-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대회 개최
- 지역 기념행사 개최 지원
- 기념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운영
- 기념재단 소식지 발간 및 홍보

## 연구조사사업

- 자료조사 · 수집 · 정리
- 자료번역 및 자료집 발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조사
- 동학농민혁명 종합정보시스템 업데이트

## 기념시설 운영지원사업

- 전시운영 및 관리
- 테마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 기념관 시설보수
- 동학농민혁명 포럼운영

## 기념관 운영사업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 · 관리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
- 어린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홍보

## 주요사업 내용

###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대회 개최

- 동학농민혁명의 자주 · 평등 · 개혁의 숭고한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확산 · 전파
- 법이 정한 목적사업 수행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선양

### 지역 기념행사 개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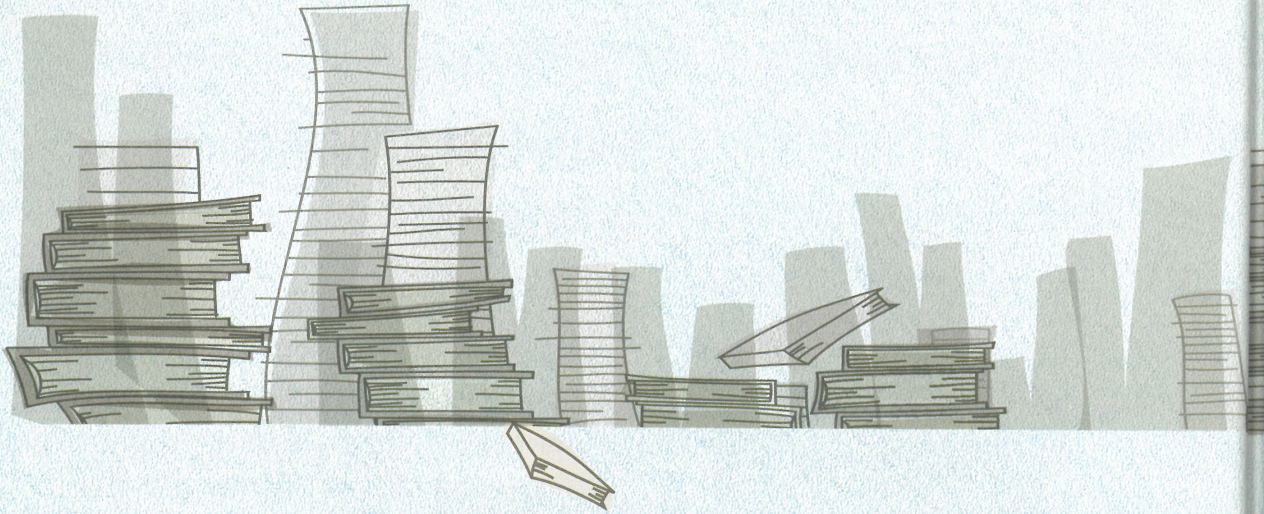
- 전국 각 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활성화 지원 및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 기념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운영

-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기념재단 소식지 발간 및 홍보

-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념재단의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함



## 연구조사사업

### 사업목적

####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

- 국내외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 조사 · 수집 정리를 통한 D/B화
-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질적인 발전 기반 제공
-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동학농민혁명 연구 성과 전파

-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심포지엄 개최
- 난해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국역화를 통한 접근성 확대
-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자료 정리를 통한 다양한 활용

### 주요사업 내용

#### 자료 조사 수집 정리

-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
-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한 동학농민혁명 연구 발전 기반 마련

#### 자료번역 및 자료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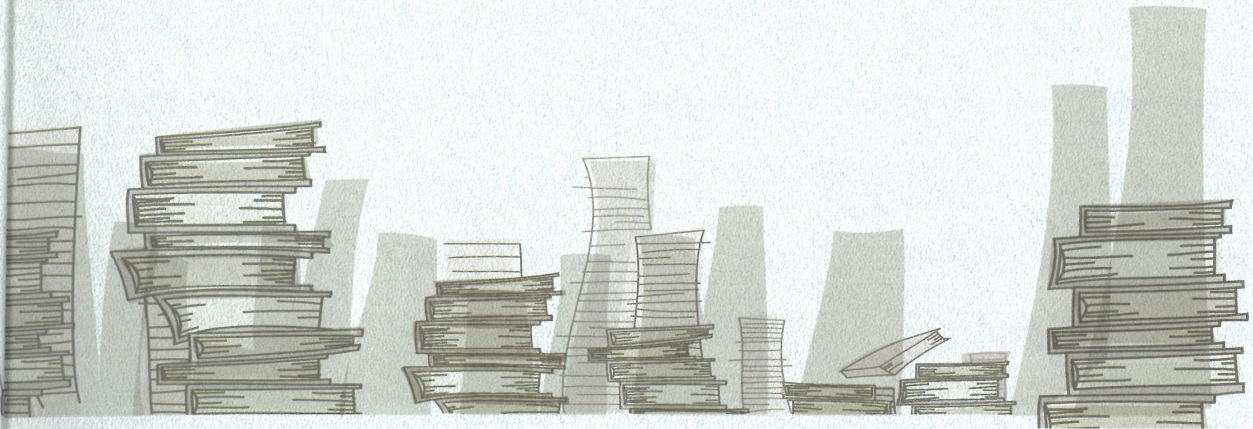
-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국역총서 발간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도서 발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조사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관련 자료의 정리

#### 종합정보시스템 업데이트

-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 관련 연구진 및 일반인들의 자료 접근 기회 제공



## 동학농민혁명기념시설 운영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 국내외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및 유물을 활용하여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중요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들의 안전한 보관

#### 동학농민혁명 저변 확대

-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국 유적지들에 대한 답사 실시
-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특별전 및 관련 도서 발간

### 주요사업 내용

#### 전시운영 및 관리

-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전 개최
- 동학농민혁명 소장자료 도록 발간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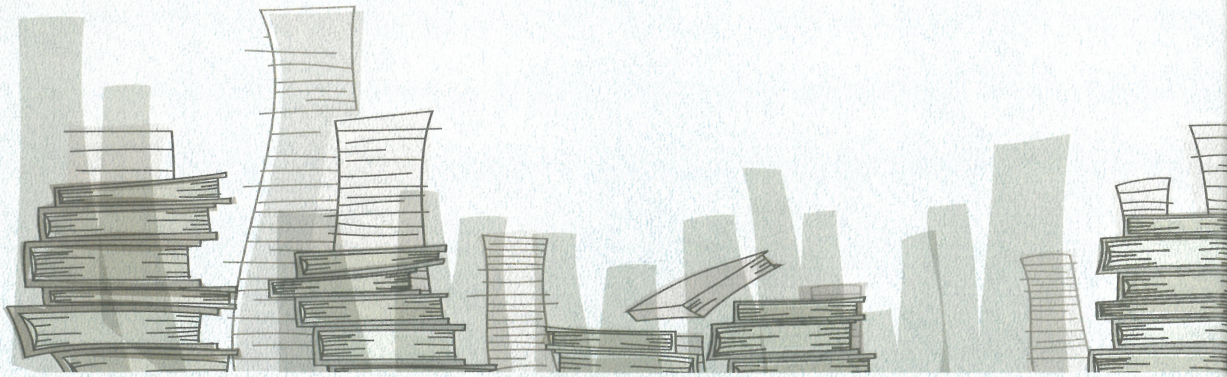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전국 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 기회 제공

#### 기념관 시설보수

- 기념관 전시환경 개선을 통한 안락한 관람환경 제공

#### 동학농민혁명 포럼 운영

- 포럼 운영위원회 및 공동연수, 명사 초청 강연회, 유적지답사 실시



## 기념관 운영사업

### 사업목적

#### 기념관을 동학농민혁명 대표시설로 육성

-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및 유물, 홍보물 활용을 통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기획전시, 어린이기념관 등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정신 전파

####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 청사관리를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를 통한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전시환경 개선

### 주요사업 내용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 유물구입, 관련도서 구입 등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정리
- 각종 행정업무를 통한 기념관운영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관리

- 체계적인 시설·조경관리로 다시 찾는 기념관으로 조성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

- 주제선정을 통한 기획전시(2회)로 동학농민혁명의 다양한 내용을 전파

#### 어린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 체험형 프로그램 교체를 통한 다양한 전시 진행
- 가족단위 관람객 유치를 통한 기념관 활성화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홍보

- 도록, 리플릿,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기념재단과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

# 보은집회와 금구집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 병 규

## 동학교단, 보은에서 집회를 개최하다

광화문 복합상소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주동자에 대한 조선정부의 탄압이 뒤따르자 동학교단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교단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였다. 광화문 복합상소 직후 동학교단의 중심세력은 동학도소가 있는 충청도 보은과 청산 등지로 내려갔다. 최시형은 1893년 3월 10일 곧바로 팔도의 모든 교인들은 보은 장내리로 모이라고 지시하였다. 3월 13일부터 보은에 모인 행렬은 3월말까지 지속되어 동학교도 2만여명 정도가 집결했다. 관에서 파악한 것만 보아도, 경기도 수원·용인·양주·이천·안산·송파·안성·죽산, 강원도 원주, 충청도의 청안·진천·청주·목천·옥천·영동·청산·비인·연산·진잠·공주·문의·태안, 전라도 함평·남원·순창·무주·태인·영광·장수·영암·나주·무안·순천, 경상도 성주·선산·상주·김산·안동·하동·진주·인동에서 동학교도들이 보은집회에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동학교도가 모인 것이다.

보은집회는 2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은 방백수령의 탐학무도함과 세호가(勢豪家)의 무단(武斷)에 있으니 만약 지금 이를 씻어 버리지 못하면 어느 때에 나라의 태평성세와 백성의 편안함이 있겠는가”라며 집회군중이 아직 기세를 올리던 때, 조선 정부는 3월 25일 충청감사 조병식을 파직하고 집회군중을 해산시킬 선무사(宣撫使)로 어윤중(魚允中)을 보냈다. 그리고 충청병사 홍재희(洪在羲, 홍계훈)에게 군사 3백명을 이끌고 보은으로 가게 했다. 1893년 4월 1일 어윤중은 보은군수 등과 함께 찾아와 “탐학한 관리들을

엄히 징벌할 것이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만약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으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임금의 윤음을 읽고 해산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동학교단 지도부는 “각하께서 친히 임금의 말씀을 포고하시니 어찌 감히 받들지 않겠습니까. 뜻을 밝히 받들어 향리로 해산하겠습니다. 각하께서 이 수만 생명을 살리셨습니다.”라고 답하며 3일 안에 해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시형, 서병학 등 동학교단 지도부는 수만명의 교도를 남겨 두고 곧바로 밤을 틈타 보은을 빠져 나갔다. 이튿날부터 보은에 모인 군중 역시 하나씩 해산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보은집회를 이끈 동학교단 지도부는 사회변화를 갈망하며 모여든 2만여명의 세력을 뚜렷한 성과없이 너무도 쉽게 흩어 보내고 말았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 그리고 민회(民會)

그렇기는 하지만 보은집회에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나는 교조신원에 머무르지 않고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내세워 서양과 일본 등 외세를 몰아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보은집회의 과정과 내용이 “민회(民會)”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동학교단 지도부는 1893년 3월 10일 보은의 성문밖에 통문을 붙였다. “지금 일본과 서양오랑캐가 나라 한 가운데 들어와 큰 난리를 칠 지경이다. 진실로 지금 서울의 형편을 보건대 끝내 오랑캐의 소굴이 되는 지라... 우리들 수만이 죽기로서 힘을 합하여 일본과 서양오랑캐를 쓸어 대보(大報)의 의리를 본받고자 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척왜양 의식이 전면에서 드러난 통문이었다. 보은집회는 이렇게 최제우의 신원



대신에 척왜양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며 시작되었다. 동학 집회운동이 동학의 공인요구라는 종교적 성격과 함께 정치적 성격을 띄어 갔던 것이다.

관의 보고에 따르면, 여기에 모인 이들은 “재기를 갖추고서도 뜻을 얻지 못해 불평불만에 차 있는 자, 탐관오리가 날뛰는 것을 분하게 여겨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자, 외국 오랑캐가 우리의 이권을 빼앗는 것을 분통하게 여겨 망령되이 그들을 내쫓는다고 큰소리치는 자, 탐욕스러운 관리의 수탈과 학대를 받아도 호소할 곳이 없는 자, 서울과 지방 토호의 횡포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보전할 수 없는 자, 죄를 짓고 도망하는 자, 감영과 군현의 관속으로서 의지할 곳이 없어 흩어져 살던 자, 농사를 지어도 쌀 한 톨도 남지 않고 장사를 하여도 한푼도 남길 수 없는 자, 무지몽매하여 풍문을 듣고 즐겨 들어온 자, 모진 빛 독촉을 견디지 못하는 자, 상놈이나 천민으로 출세해 보려는 자”들이었다.

이때 보은에는 동학교도 이외에도 당시 사회구조에 희생되거나 큰 불만을 가진 농민들이 모여 집회군중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산 아래 평지에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대오를 정비하며 ‘척왜양창의’라고 쓴 깃발을 내거는 한편, 새로운 방문과 통문을 냈다. 이에 당황한 보은군수는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보은의 교인들은 ‘창의함은 오직 척왜양에 있으니, 비록 관령(官令)이라고 그칠 수 없다. 또 동학은 처음

부터 사술(邪術)이 아니며, 설사 사술이라 일러도 임금이 옥당하고 신하가 죽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충의(忠義) 하나 뿐이니, 각처 유생이 한마음 한뜻으로 죽음을 맹세하고 충성을 다하고자 한다’, ‘일본과 서양 오랑캐를 치겠다는 선비를 죄주어 가둔다면 화를 주장하는 매국자를 상준단 말인가… 혹 미혹한 자가 관령에 순종하여 왜양의 심복이 될까 두렵다’라는 글을 내어 해산령을 거절하면서 척왜양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냈다.

한편으로 보은집회에서 눈여겨 볼 점은 민회(民會)라는 개념의 등장이다. 어윤중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보은집회에 모여든 이들이 “우리의 이 회(會)는 척촌(尺寸)의 무기도 손에 쥐지 않았으니 민회(民會)라 할 만하다. 일찍이 들으니 각국에 또한 민회(民會)라는 것이 있어서 조정의 정령(政令)이 민국(民國)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회의를 열어 강정(講定)한다 하니 이번 일을 어찌 비류들의 일이라 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즉 보은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일종의 민회(民會)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참여한 집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는 진전된 민권(民權)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또 종교 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 성격까지 띄어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시대정신에 부합된 면모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금구집회터 ▶

### 변혁지향세력이 주도한 금구집회

보은집회가 한창일 무렵 전라도 금구현 원평에서도 동학교도들이 집회, 즉 금구집회가 개최되었다. 금구현 수류면 원평리에서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은 『일성록(日省錄)』, 『취어(聚語)』, 『속음청사(續陰晴史)』, 『동도문변(東徒問辯)』, 『토비대략(討匪大略)』, 『남원군종리원사부동학사(南原郡宗理院史附東學史)』, 『시천교역사(侍天教歷史)』 등 관변측 자료, 유생측 자료, 동학교단측 자료 등 1차 사료에서 확인된다.

금구집회는 1893년 3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는 보은집회가 진행되고 있던 때이다. 『일성록』이 금구집회의 실재와 시기를 증언해 주고 있다. 『일성록』고종 30년(1893년) 3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사폐(멀리 부임하는 신하가 임금에게 하직인사 하는 것)하는 새로운 전라감사 김문현과 고종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고종이 이르기를 ‘말이란 한번 두 번 옮기다보면 터무니 없는 말을 지어내게 되는 것이나 족히 믿을 것이 못된다. 호남에서도 금구에 가장 많다하니 전주감영에서는 어느 거리인가, 먼저 그 소굴을 격파하여 금단하고 일소하는 방도를 삼도록 하라’ 라고 하니, 김문현이 답하기를 ‘30리 가량 되는데 금구 원평에 과연 취당하고 있다 하옵니다’ 라고 하였다”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금구집회에 모인 동학교도들은 1만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금구집회의 주도자는 전봉준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창렬은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지도자인 전봉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세력을 형성

하였는가에 대해, 동학교문의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봉준이 활동을 전개하여 1893년 3월 독자적 세력집단으로서 ‘금구취당’을 형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893년 사발통문 서명자로 출현하였으며 이후 고부민란에서 처음으로 지도자로 출현하였다’고 주장하여 금구집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또한 조경달은 ‘금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전봉준의 투쟁 기반은 이미 이 금구집회에서 던져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거나 ‘금구집회는 스스로의 역량을 집약시켜 보은집회 참가자를 끌어들여 단번에 반정부운동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금구집회는 보은집회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정치적 지향은 그보다 더 확고했으며 분명한 목적의식 하에서 이루어졌다. 금구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바로 삼례집회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은 채 서울의 과거사건을 주도했던 전봉준 등 전라도의 변혁지향세력이었다. 이들은 동학의 집회운동 과정에서 서서히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지향을 공고히 하면서 집회운동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금구집회는 앞으로 있게 될 거대한 역사적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신순철 · 이진영, 『실록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박찬승.
- 「1892 · 1893년 동학교도들의 ‘신원’ 운동과 ‘취왜양’ 운동」,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993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교법인 신태인학원〉 이사장 박 문 희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향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수많은 의견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하며 지속적인 정신선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알리고 관심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법인 신태인학원은 신태인 중·고등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 학교들을 13년 전부터 〈동학농민혁명 탐구와 정신계승〉이라는 주제로 특색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1995년부터 신태인학원의 운영전반을 맡고 계시는 박문희 이사장님의 만남은 〈동학농민혁명 탐구와 정신계승〉사업이 무엇인지와 그분의 생각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대하여 청해 듣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대물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문희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Q;** 안녕하세요십니까? 이사장님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태인학원 이사, 민족통일정읍군협의회장, 정읍군애향운동본부장, 제4·5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북사학법인 협의회장, 제12·13기 평통자문회의정읍시협의회회장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하다가 1995년부터 신태인학원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박문희라고 합니다.

Q; **현재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만석보가 위치했던 예동마을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이곳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어떤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까?**

A; 고부봉기 당시 농민군들이 예동마을에서 진곳을 치며 나갔다고 합니다. 예동마을의 지형이 마치 소쿠리 같이 폐쇄된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주위의 간섭이나 방해를 막기 위해 이곳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곳을 친 것은 봉기에 참여할 농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말목장터까지 도착한 후 감나무 아래에서 집결한 것입니다. 즉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는 예동마을이고 고부봉기의 집결지가 말목장터였던 것이지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는 시의원들이 힘을 모아 예동마을에 육각정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육각정은 만석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상량에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Q; **예동마을에서 13대 조부 때부터 거주하고 계시는데 남다른 애정이나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A; 갑오년 당시 조병갑이 쫓겨나고 안길수가 군수로 부임해 만석보를 혁파하였습니다. 혁파를 위해 호동(하송리), 현동(두지리), 강목동(오금리), 팔부동(팔선리), 요동(마항리), 표룡동(두전리)등 여러 마을에서 주민들을 동원했는데, 이 ‘동’이라는 글자가 붙은 마을은 만석보에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만석보 혁파작업 중 유독 호동마을 사람들이 예의를 갖춰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길수가 예의 바른 주민들이 사는 곳이니 예동마을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구전되는 이야기라 사실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선조 분들이 예를 알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셨다는데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당시 피해를 입으셨다고 들었는데, 농민군으로 참여하신 것입니까?**

A; 증조부께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농민군으로 참여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천도교 사상이 모계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모님과 모친, 그리고 아내도 천도교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모친께서 종교에 깊이 관여하여 ‘청운당’이라는 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청수를 모시는 것이나 ‘시천주 조화정’으로 시작하는 주문을 외우시는 것도 자주 보았습니다.

**Q; 예동마을에 최초봉기탑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A;** 제가 이평이라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태어나 후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 갑오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이 내장산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예동마을에 최초봉기탑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순창의 피노리 마을에는 전봉준장군의 피체지를 유적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인 정읍에서 선조들의 정신을 제대로 선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봉기탑은 꼭 현지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만석보혁명파비 앞 광장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진척된 사항은 없으나 내년엔 돌아오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에 맞춰 꼭 최초봉기탑을 세울 예정입니다.

**Q; 신태인 중·고등학교에서는 <동학농민혁명 탐구와 정신계승>이라는 특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동학농민혁명 탐구와 정신계승>사업은 전국에서 신태인 중·고등학교에서만 시행 중인 특색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 지난 13년 동안 신태인중학교 김봉승교감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업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라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간추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동학농민혁명정신 함양을 위해 동학농민혁명관련 권위자 분들을 모셔 초청강연회를 열었고 비디오, CD, DVD 등 자료를 수집하여 시청각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개최하는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전봉준 역사캠프나 전주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동학농민군 전주입성기념대회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행사에 참여하여 백일장, 사생대회, 역사골든벨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순례도 진행 중입니다.

특색사업으로서 유일하게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전국에서 가장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이 근현대사의 맥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후예이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후예라는 것을 깨달아 애향심,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유익한 효과들이 나타나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우리학교 이외의 정읍권의 학교에서는 동학농민혁명관련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는데, 올해 정읍교육청의 특색사업이 동학농민혁명의 탐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학교에서 시행했던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 많은 정읍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갖고 선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Q;** 동학농민혁명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A;**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당시의 사고로서는 관에 항거 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봉건제도의 부정 부패에 항거하여 들고 일어난 그 정신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이 정신을 역사적으로 승화하여 그 발상지인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고부봉기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최초 봉기일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일어난 사건들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을 알고 그 중요함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Q;** 기념재단에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A;**古김대중 前대통령께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관심을 가지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만든 것은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복잡한 관리체계는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 재단은 문광부에서, 기념관은 도에서, 전적지 부지는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타파하고 문광부에서 전체적으로 재단의 운영을 맡아야 역사학자들도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더 가지고 정신선양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만큼 효과가 큰 것도 없을 것입니다.

---

<동학농민혁명 탐구와 정신계승>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선양해 나갈 상태인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있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문희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다.

---



##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이어받아 3대에 걸친 구국운동을 전개하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최기주**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비단 1894년에 그친 것이 아니라 3·1운동과 4·19 혁명, 5·18민중항쟁의 정신으로 이어져 내려와 우리나라 민주화정신의 뿌리가 되었다. 전라북도 임실군 쌍암리 운암초등학교의 교문 왼편에는 운암3대운동기념비(을미3·1운동기념비, 갑오동학농민혁명기념비, 무인멸왜운동기념비)가 세워져있다.

이 기념비들은 임실에서 구국운동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최기주 선생님의 선조님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다. 고조부께서는 임실의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셨으며, 증조부께서는 접주로 활동하셨고, 배일사상을 단증 하는 삼화학교, 창동학교를 설립하였으며 3·1운동당시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셨다. 또한 조부께서는 무인멸왜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 구국운동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몸소 보여주시는 최기주 선생님의 선조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Q;**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고향에서 선산을 돌보고 자그마한 농토를 경작하면서 지내고 있는 최기주라고 합니다.

2004년에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발족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임실지역에서는 제가 대표가 되어 42명의 참여자를 발굴하고 그분들의 유족 1000여 명을 참여자 유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임실군 유족회장을 맡게 되어 지금까지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Q;** 고조부님과 증조부님께서 어떤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하셨습니까?

**A;** 저희 고조부께서는 임실지역의 대농이셨으며 덕망이 높아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20여 년 전인 1873년에 최시형교주께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임실지역을 방문하셨는데 당시 고조부님이 최시형 교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위와 아들 3형제, 그리고 지역에서 학문을 닦으시던 분들을 모시고 보름동안 최시형교주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고 그 길로 동학에 입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임실지역에 동학의 교세가 점점 확장되어 무려 2천여 세대가 동학을 신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찍이 동학에 입도하셨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에도 처음부터 참여하시게 되셨습니다. 고창의 무장기포와 백산대회에 참여하셨으며 임실지역에서도 3월에 고조부님의 주도로 기포했다고 합니다. 임실지역은 동학의 교세가 워낙 강했고 관에서도 협조적이어서 아무런 전투 없이 7월에 집강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즉 무혈입성을 한 것이지요. 집강소 설치 후에는 증조부께서 접주로 활동하시면서 불합리한 세금징수를 개혁하는 등 민정을 다스리셨다고 합니다. 고조부님의 사위는 남원의 접주로 활약하셨는데 남원을 점령하고 경상도 쪽으로 진출하는 도중 여원치에서 전투가 벌어져 사위와 아들 3형제가 함께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고조부께서는 전투에 필요한 무기와 식량을 지원해주셨다고 합니다. 이후 9월 삼례에서의 재봉기에 참여하시고 공주 우금치전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군 한명이 농민군 200명과 맞먹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동학농민군은 우금치에서 결정적인 참패를 당하여 쫓기게 되고 임실지역에서 참여한 접주 분들은 해문산에서 약 6년간 은거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타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는데 임실은 직접적인 전투가 없었던 데다 동학의 교세가 번창했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고조부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이 마무리된 뒤 4년 후에 돌아가셨지만 이후에도 증조부님과 조부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구국운동을 하셨습니다.

**Q;** 증조부님께서 접주로서 집강소를 다스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A;** 저희 집안에 노복을 10명 정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들을 전부 평민으로 해방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활동하기 편하도록 단발을 하도록 하였으며 당시는 백의민족이라 하여 항상 흰옷만을 고집하였는데 흰옷을 입는 것은 농사일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따랐

습니다. 그래서 색이 들어간 옷을 입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집강소를 운영하시면서 신문 화운동을 함께 전개하셨던 것입니다.

**Q; 선조님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어느 분께서 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A;** 부친께서 명절 때나 가족모임 때면 으레 선조님들의 참여사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증조부님께서 오래 생존해 계셨는데 그분께 세배하러 가면 항상 자랑스럽게 참여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집안어르신들께서는 임실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 고조부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Q; 증조부님과 조부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어떤 구국운동에 참여하셨습니까?**

**A;** 증조부님께서 고조부님께 물려받은 자산으로 1905년에 임실군 청음면에 창동학교를, 그리고 전주 노송동에 산화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이 학교들은 배일(排日)학교로 구국운동을 위한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창동학교 출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배운 분들이 3·1운동에 많이 참여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배일운동의 중심에 있었기에 일제에 의해 1909년에 폐교되고 말았습니다.

1919년에는 2월부터 전주에서 전라북도 대표들이 모여 3·1운동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 증조부님께서 임실군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임실에서의 만세운동은 3월 2일 운암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 약 50여 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토록 열성적으로 거사에 임했기에 주민중 약 60여명이 형을 받았고 증조부님과 함께 활동하시던 세분이 옥사하셨습니다. 계획을 자백했다면 고문이 심하지 않았을 텐데 동료들을 감싸기 위해 더 모진고문을 당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행히 증조부님께서는 화를 피하여 계속적으로 배일운동을 전개하셨고 자신의 전 재산에 주민들에게 모금한 돈을 더해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활동하신 사항을 일성록이라는 일기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셨는데 6·25 때 마을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통에 함께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부님께서는 무인멸왜운동 (천도교에서 1936년부터 일제의 패망과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는 기도문을 매일 아침, 저녁 식고(食告) 때 외도록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였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시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후 다시 체포될 것을 염려하여 친구 분 댁 뒷산에 땅굴을 파고 3년간을 숨어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진 고문으로 인해 장독이 올라 해방 후 6·25 이듬해에 돌아가셨습니다.





**Q;** 운암초등학교 앞의 <운암 3대 운동 기념비>는 갑오동학농민혁명기념비, 을미 3·1운동기념비, 무인멸왜운동기념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A;** 저희 부친께서는 고조부님을 비롯하여 증조부님, 조부님 그리고 함께 활동하신 여러 선인 분들의 업적을 그냥 잊혀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기념비를 세우자고 제안하셨고 회의 끝에 성금을 모아 기념비를 세울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당시 임실 군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념비를 세울 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느 곳에 비를 세울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운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앞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며 선뜻 학교 부지를 제공해주셔서 운암초등학교 교문 왼편에 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친께서 발기하여 유족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이후에는 거국적인 행사가 되었고, 현재는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세워진지 40여년이 되어 기와가 떨어져 나가고 담장이 흐트러지는 등 훼손된 부분이 많아 작년에는 철망을 제거하고 자연과 조화가 되도록 정화사업을 하였습니다.

**Q;** 선조님들께서 3대를 이어 구국운동에 참여하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 후손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세월에 묻히지 않고 후대에까지 업적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손들이 더 행동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친과 제증조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선조님들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A;** 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 해마다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유족회도 기념사업회와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을 위하여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모든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 동남부지역의 대표적 청년  
동학농민군 지도자

## 김인배 (金仁培)

호남을 아우르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인배의 일대기.  
1870년에 출생하여 1891년에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1894년에 사망한 김인배는 농민군 통치가 이루어질 시기에  
순천·여수·광양·하동 일대를 석권하고  
농민군의 후방을 책임지는 인물이었다.



동국대 연구교수 조재곤

### 영호대도소 대접주로 활약

김인배는 1870년 6월 전라도 금구 하서면 봉서마을에서 아버지 현표(顯彪)와 어머니 경주 이씨의 큰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김해이고 족보명은 용배(龍培), 자는 양여(陽女)이다. 그의 집은 100여 석을 수확하고 상당수의 머슴을 거느리는 부농에 속하였는데, 8세 때 종백부 현모의 양자로 입적하였다. 그러던 중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전라도 일대에서 시작되자 김인배는 농민군에 들어가 전주성 점령에 참여하였다. 그는 원래 김덕명 포에 속해 있다가 전주성 공방전 이후부터 김개남 측근의 대접주로 활약하게 된다.

김인배는 김개남이 남원서 집강소 활동을 할 무렵인 6월 순천 지방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순천 성내에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설치하고 농민군의 군수(軍需)를 위해 무기와 전곡(錢穀)을 징발하였다. 당시 영호대도소는 김인배를 대접주로, 유하덕을 수접주로, 정우형을 도집강으로, 권병택을 성찰로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 아래 순천 광양의 11개 면을 단위로 한 접주들이 있었다. 영호대도소는 전라도 동남부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농민군 조직이었다.

### 경상도 하동전투와 전라도 광양전투에 참여

김인배는 순천에서 활동하다가 8월부터 경상도 하동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이어 9월 1일 전투에 김인배와 유하덕이



이끄는 농민군 1만여 명이 출전하였다. 결과는 농민군의 대승리로 민보군과 향병은 달아났다.

농민군은 9월 2일 하동부 관아에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집강소 활동을 시작하였다. 하동집강소는 약 2개월 동안 활동하였는데, 이때 농민군들은 민보군 거점인 화개동 500여 채에 불을 질렀고, 김인배는 처음 며칠간 이곳에 머물렀다.

김인배는 하동전투 승리 이후 진주로 갔다. 영호대도소의 농민군과 현지의 농민군은 9월 14일 진주성에 입성하여 옥문을 부수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9월 17일에는 남원과 구례, 익산 등지의 농민군도 이 지역 농민군 대열에 합류했다. 김인배는 농민군 1천여 명을 이끌고 18일 진주로 들어와 대도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10월 18일 하동에 들어온 일본군과 진주병영의 군사, 토포사가 이끄는 중앙군들은 22일 광양 섬거역에서 농민군과 접전을 펼쳐 10여명 이상을 살해하였고, 당일 광양의 농민군 1천여 명은 섬진강을 건너 하동부를 공격했다. 이때 김인배는 섬진나루로 진격하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화기공격으로 농민군들은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고, 김인배 또한 산골에 숨어 있다가 후퇴하였다.

진주 퇴각 후 하동과 광양전투에서 패한 김인배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10월 말 이후 유하덕과 함께 순천과 광양의 농민군을 다시 규합하여 여수의 좌수영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 세 차례에 걸친 좌수영 공격과 처형

황현(黃玑)의 「오하기문(梧下記聞)」에 따르면 김인배가 좌수영을 공격하려 한 것은 뱃길을 끊어 세금상납과 상거래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라 한다. 11월 10일 첫 번째 공격에서 좌수영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양측이 별다른 피해 없이 일단 순천으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11월 16일 다시 습격하여 감영 병과 성 밖에서 접전 후 후퇴하였다. 그러나 좌수영 수사 김철규는 통영의 일본 해군 측량선 츠쿠바호(筑波號) 함장 구로오카(黒岡)에게 서한을 보내 동학농민군 섬멸을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군 100여 명이 진남관으로 들어왔다. 드디어 11월 22일 농민군 수만명은 덕양역 전투를 시작으로 최후의 결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일본군의 공격으로 농민군들은 일방적인 수세에 몰렸고, 그날 밤 좌수영 격전에서 이풍영이 이끄는 좌수영 군사들의 습격으로 또다시 패주하였다.

김인배는 이후 순천을 거점으로 주변 일대에서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2월 초 순천, 광양, 구례 등지에서 민보군이 조직되었고, 이들은 숨어있던 농민군들을 체포 처형하는 등 잔인한 보복을 개시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김인배와 유하덕은 1천여 명을 이끌고 순천에서 광양으로 옮겼다. 그러나 12월 7일 광양의 민보군 김석하 등은 아전들과 함께 농민군 대토벌전을 펼쳐 김인배를 비롯한 농민군 40여 명을, 며칠 후에는 다시 100여 명을 체포하였다. 김인배는 이때 봉강접주 박흥서 등 부하 23명과 함께 참수 처형된 후 광양객사 문 앞에 효수(梟首)되었다. 이때 그는 약관 25세였다.

#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그림 김대환 만화가



갑오개혁 이후 조선의 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내정간섭과 침략에 더욱 강도를 높여갔다.



싫카리시료요!!  
독바로 하란말이야!!

허!~~~ 이를 어찌 할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참담하기 그지 없구만  
그려~~~

농민군 지도층은 집강소체재를  
유지하며 상황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라, 충청, 경상도지방에서는  
봉기하는 농민군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전봉준이 추구하고 있던 타협적인  
집강소체재와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없잖소. 먼저 우리들이라도  
힘을 모아서 왜구토벌에  
앞장섭시다.

그말이 수백번 읊은말이오! 모두 일어 남시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주력 농민군이 상황주시에 힘을  
기울일 때 일부 지역의 농민군들이 자체적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봉기한 것이다.

우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  
왜군들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이런 각지의 척왜 봉기는  
주력 농민군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개남은 남원 교령산성등의 병기고를  
털어 군기를 장악하고 부호의  
전곡을 거둬 들였다!

우리가 이제 나서서  
막강한 힘을  
보여 줍시다.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살수 있소!

농민들의 역량을  
보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오.

전봉준은 집강소  
체제를 유지하며  
신중론을,  
김개남은 대중은  
한 번 흩어지면  
모이기 힘들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대중은 한번 흩어지면  
다시모이기 어렵소.  
그러니,  
이제 움직여야 하오.

대원군은 8월 25일경 전라도  
농민군 등에게 농민군을  
해산하라는 호유문과 함께  
별도로 삼남 각처의  
양반과 보부상, 농민군들이  
다 같이 창의해 일본군을  
몰아내자는 밀서를  
내려 보낸다.

전라도 일부 위키

우리는 농민군과  
뜻을 함께 할수 없소.

김개남은 밀서가 대원군의 참뜻이라 믿었고  
대원군과의 연합이 구체화되면서 재봉기를 확정하였다.

전봉준은  
손화중 등에게  
밀지의  
전달사실을  
비밀로 붙이게  
하고 본격적으로  
재봉기 준비를  
시작하였다.

준비를 시작 합시다.  
이제 술술 재봉기

이기자  
싸우자

모두가 무기를 갖고  
힘을 합쳐  
왜를 토벌합시다.

3남 지방의 농민군에게  
'일본군을 쳐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국외로 구축할 마음으로  
다시 기병하자' 는 격문을 발송하였다.

격문이 전달되자  
각지에서 10만 여명의  
무장한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시작되었다.

# 다시 보는 배들평야



정읍문화원 사무국장 이용찬

을 계사년(癸巳年)이 지나면 또다시 갑오년(甲午年)이다.  
 이는 “정읍부터 서울까지 모든 권귀들을 찾아 척살하겠다.”며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함께 일기 시작했던 그날의 첫 함성이  
 터져 나왔던 게 벌써 60갑자가 두 번째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120여 년 전 척박하기만 했던 그 때에 비해  
 눈부신 경제적 성장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다변  
 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서민들의 생계는 여전히 궁핍하며 해바라기처럼  
 기득권에 아부하는 세력들도 여전히 있고, 권력을 쥔  
 자들의 권력 나눠 갖기 형태 또한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과도기적  
 사건 이후 굴욕의 시대를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의  
 회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  
 집중화 속에서 작은 권력이라도 나누려는 집단 이  
 기심으로 불거지는 불협화음들은 오히려 현 시대  
 가 더한 듯하다. 모두가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기  
 주의가 공익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일까? 암울했던 시절 호남평야에서도 가  
 장 비옥했던 땅, 배들 평야에서는 추수를 하고도 벼  
 이삭하나 남지 않을 만큼 가혹한 수탈이 수세기에  
 걸쳐 진행되어 옥토에서도 민생은 척박해야 했다.

지금까지도 배들 평야는 가슴시린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소외와 수탈, 갖은 학정과 억압의  
 상징이었던 배들 평야는 “단순 민란이 일어났던  
 곳에 지나지 않다”는 팔시 속에서 차츰 동학농민  
 혁명사에서조차 잊혀가고 있다.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고 했던가? 동학  
 농민혁명 120주년에 직면한 현 시대에서는 우리  
 선인들이 피를 토하며 갈구하던 참세상의 의미를 돌  
 아보기보다 또 다른 기득권을 내세우기 위해 ‘동  
 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해당 지자체의  
 사활로 대두시키고 있다. 이렇듯 그날의 혁명이  
 또다시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보게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박해를 일삼던 기득권층들을  
 향해 사람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  
 음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요구했  
 던 혁명이다. 당시의 상황은 세도 정권을 뒷받침  
 하고 있던 지방 토호 세력들의 오랜 횡포로 인해  
 전 지역에 걸쳐서 삼정의 문란이 만연하였다.



그런 삼정의 문란 중에서도 특히 군정의 폐해는 더욱 심각했다. 갓난아이에게도 군정 세를 부과하여 갓 태어난 사내아이의 고추를 자르고 계집아이가 태어났다고 관아에 거짓 신고를 해야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19세기는 자본주의를 앞세운 서구 열강들이 세계 곳곳을 식민지화하며 약소국의 정치와 경제 등 자원적인 자산을 모두 침탈하던 참담한 상황이었다.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에 젖어 청나라의 신하를 자처하며 조공을 바치던 조선은 청이 1840년 아편 전쟁으로 당시 까지는 신흥제국에 지나지 않던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똑똑히 지켜 보았다.

그럼에도 조선의 세도가들은 구태의 악습을 버리지 못했고 나라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갔다. 그리고 그 책임이 국운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은 난에 있다며 민초들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

그런 반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일본의 막부(幕府)는 쇄국의 길을 버리고 문물이 앞서 있던 서방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며 급변하던 시대기류 속에서 극명한 자구책을 찾아 국가 경영에 나서게 했다.

그런 일본이 변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서구열강들보다 먼저 노리게 되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농민들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일어섰고, 일본군의 앞선 화력 앞에서 무력하게 스러져 가야만 했다. 그런 선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안락한 시대도 쉬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 시대의 권귀들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오히려 자신들의 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과연 동학농민혁명의 참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케 한다. 그 위대한 혁명을 가리켜 “어디까지는 단순 민란이니 역사적 가치가 없고, 여기는 더 의미가 있으니 이곳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며 실행행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을 특정지역에서 주장하는 날짜로 선정한다면 분란은 후대에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무능한 조선 조정과 세도 정치가들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았던 주된 이유가 일부 정치권의 탐욕이 공익을 넘어섰기 때문에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대동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과 의병,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던 구한말의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의 근현대사로 바로설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선양사업단체들이 사심을 버리고 국가기념일이 제정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해당 지역의 기념일을 앞세우던 움직임을 멈추고, 국가기념일 제정은 기념재단의 몫으로 넘겨줘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념일 제정과 함께 시작되는 범국민적 국가선양사업을 위해서 지역 기념사업회는 기념재단과 협력하여 각 지역의 선양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우리 후인들

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만 120여 년 전, 우리 선인들이 피땀 흘린 울부짖음으로 외치던 참 세상의 날도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혼을 찾아서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번호부터 전승이야기부문을 대상으로 수상한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혼을 찾아서' (최성기, 이영근, 황다비 공저,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894년 3월, 꽃피는 봄이 왔다. 농민들은 한창 농사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한 손에 농기구를 한 손에는 불끈 쥐 신념을 가지고 관아로 향한다. 봉건체제의 핍박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의 혁명이 시작되고, 같은 해 9월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된다. 순수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들은 사발통문에 혁명의 의지를 담아서 그 뜻을 모은다. 하지만 일본의 사주를 받은 세력에 의해 사발통문을 강탈당하고, 조작된 문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고자한 그들의 뜻이, 단순히 왕권을 탈취하기 위한 농민반란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주축을 이루던 5대 장군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다. 역사는 이렇게 때 묻은 승자의 손에 의해 기록되어 우리 민중의 숭고한 혁명을 단순한 농민의 난으로 치부하게 된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의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역사에 기록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영혼들은 쉽게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오점을 바로잡고자 때를 기다린다.

시간이 흘러 현재의 정읍초등학교 교실. 여느 초등학교와 다를 바 없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교실 바닥이 쿵쿵 거리는 소음이 들린다. 교실에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전교 1등 명석이와 또래 아이들보다 덩치가 두 배는 큰 호동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옆에서 말없이 모자를 눌러쓰고 앉아 있는 에디와 그들 중 유일한 홍일점 다숨이가 보인다. 이 네 명은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소꿉친구들로 항상 붙어 다녀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정읍사남매라고 불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전태일이라는 전학생이 그들의 교실로 오게 된다. 태어나서 꼭 서울에서만 자란 태일이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 할아버지 덕이 있는 정읍으로 전학을 오게 되고 정읍사남매가 있는 반으로 배정 받는다. 태일은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자기소개를 하고, 주변의 이목을 끌게 된다. 하지만 명석, 호동이, 에디는 전학생이 첫날부터 아이들의 이목을 끄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태일을 놀려주기로 계획을 세운다. 어쩐지 다숨은 웬지 이러한 아이들의 계획을 반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태일은 아이들의 작전을 간파하고, 되려 놀려주게 된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태일에게 사과를 하고 태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을 용서한다. 그리고 정읍사남매와 이미 알고 지낸 친구처럼 친해지게 된다. 태일의 가세로 정읍사남매는 일명 오동단으로 불리며,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말썽꾸러기로 자리매김한다.

학교 뒷산 중턱의 한 초가집은 아이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이라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 귀신 따위는 없다고 믿는 태일은 거리낌 없이 오밤중에 귀신의 집을 찾아간다. 태일은 그곳에서 귀신같이 생긴 할아버지 한분을 만나게 된다. 초가집의 주인인 할아버지는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태일에게 집 뒷마당의 무너질 것 같은 작은 사당을 보여준다. 캄캄한 사당 안에는 다섯 개의 이름 모를 위패가 모셔져 있었고, 태일은 그 위패들의 한문을 읽기 시작했다. 동학농민혁명 5대 장군. 그 순간, 자신의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을 느낀 태일이 뒤를 돌아보니 조선시대 복장을 한 키 작은 아저씨가 서 있었다. 태일은 깜짝 놀라 자리를 박차고 도망친다.

다음날 태일은 아이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알리고픈 태일은 그 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귀신의 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전날 밤 자신이 귀신을 보았던 사당 안으로 향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섯 개의 위패 앞에 자리 잡는다. 아무 일 없이 정적만 흐르고, 아이들이 안도하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 하얀 조선시대 의복을 입은 다섯 남자가 나타난다. 아이들은 온몸이 얼어붙어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리고 다섯 남자 가운데 가장 키가 작은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건넨다. 자신들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동학농민혁명의 5대 장군이고, 자신은 전봉준이라고 소개했다. 여기에 명석은 자신들이 배웠던 교과서의 내용에서 동학의 난은 잘못된 농민들의 반란이었다고 말하고, 전봉준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의 실상과 숨겨진 역사를 말해 준다. 아이들은 미심쩍어 하지만 태일만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그들을 도와주기로 한다. 실랑이 끝에 아이들을 설득한 태일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혼령이 된 5대 장군과 힘을 모아 진짜 사발통문을 찾기로 마음 먹는다.

김덕명 장군은 동학농민혁명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의 아들이, 강탈당한 사발통문을 4조각으로 나누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감추었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사발통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부관아 터로 향한다. 그곳에서 조병갑의 동상을 발견하고 그 아래 작은 표지판에서 동상을 만든 사람이 조병갑의 후손 조덕배라는 것을 알아낸다. 조덕배는 정읍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엄청난 고리대를 놓으며 횡포를 일삼는 불법사채업자다. 자기 조상의 부정을 알고 있는 조덕배는 사

## 캐릭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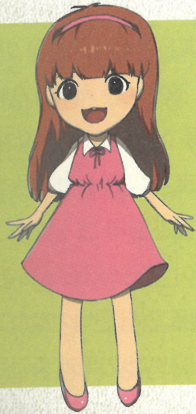
**전태일** 정읍초등학교 5학년의 사고뭉치 오동단의 리더. 서울에서 전학을 와서 뛰어난 친화력으로 아이들의 중심에 서게 된다. 왕성한 호기심과 추리력을 가진 소년으로 머리가 좋지만 공부에는 쓰지 않고 재미 있는 일에만 열중한다.



**호동이** 몸은 이미 중학생 못지않은 체격의 소유자. 나이에 맞지 않은 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머리가 다소 나쁘다. 태일에게 텃새를 부리지만 매번 되레 골탕 먹는다. 후에 둘도 없는 벗이 된다.

발통문의 조각들을 찾아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하며, 이미 한 조각의 문서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문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시 귀신의 집으로 향한다.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잃어버린 사발통문의 흔적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사발통문의 한조각은 조덕배에게 있으며 나머지는 각각 남원 교룡산성과 백산성, 그리고 우금치 전적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준다.

다음날 이른 아침, 오동단이 흩어진 사발통문 조각을 찾아 나서는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된다.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따사로운 햇볕이 밝게 비춰오고 있다. 두꺼운 역사책을 옆구리에 낀 채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명석이와 우걱우걱 양 볼 가득 빵을 먹고 있는 호동이가 함께 학교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그 뒤로는 호동의 덩치에 가려져 있던 에디도 보인다. 잠시 후 저 멀리 손을 흔들며 달려오는 다숨이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여유 있게 걸어오는 태일이 까지 오동단은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아이들은 다시 한 번 귀신의 집으로 찾아가 위패에 잠들어 있는 장군들을 깨우고, 할아버지에게 첫 번째 사발통문의 조각을 찾을 수 있는 교룡산성의 지도를 받는다. 아이들은 어제처럼 5대 장군의 훈령을 보고 놀라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장군들과 꽤나 친근해진 모습이다. 오동단은 보물을 찾아 나서는 양 한껏 들떠 교룡산성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들이 교룡산성으로 향하고 있던 그 시간, 귀신의 집에는 의문의 사내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바로 조병갑의 후손 조덕배가 사발통문 조각들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등장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5대 장군들의 위패만을 결눈질해 확인하고 있



**다솜이**\_ 오동단의 유일한 히로인, 평소에는 여리고 가 날 퍼 보이지만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용기를 아끼지 않는다.



**김명석**\_ 명실상부한 정읍초등학교의 브레인. 전교 1등은 물론 지역 수학경시대회 3관왕에 빛나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 남들은 모르는 태일의 뛰어난 머리를 유일하게 알아채고, 유독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



**에디**\_ 왜소한 체구에 늘 말없이 옆에 가만히 있는 친구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에게 필요한 조언과 역할을 수행해준다.

다. 조덕배 일당은 할아버지에게 직접 단서를 듣기는 어렵다 여기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모든 문서들을 빼앗는다. 문서를 건네받은 조덕배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교통산성, 백산성, 그리고 우금치 전적지……. 바로 이곳이었군. 내 반드시 사발통문 조각들을 찾아내 우리 가문을 더럽히는 일은 절대로 만들지 않을 테다.”

오동단과 5대 장군은 마침내 교통산성의 입구에 도착한다. 태일은 귀신의 집에서 건네받은 지도를 들고 주변을 살펴본다. 그 사이 김개남장군은 어딘가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거기에는 ‘김개남 동학농민군 주둔지’라고 쓰여 있는 비석이 있다. 아이스크림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던 호동이는 김개남장군을 따라 비석을 바라보며 비석의 글자를 따라 읽는다. “김개남 동학농민군 주둔지? 이곳에서도 싸웠어요? 이겼어요?” 김개남장군은 생각에 잠긴다. “우리는 이곳에서 힘을 좀 더 키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단다. 무력을 강화하며 전투준비를 하고 있었지. 주변을 보거라. 이곳은 튼튼한 성곽으로 둘러싸여 적군을 피하기에 안전한 지역이었고,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었지. 저기 저곳 보이지? 그곳은 예전에 음식을 보관해 놓는 창고였단다.” 먹을거리 얘기에 호동이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곳을 바라본다.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태일이 오동단을 불러 모았다. 태일은 앞장서서 자신의 키의 세배쯤은 되는 성벽을 향해 걸어간다. 오동단과 5대 장군들이 흥예문을 지나자 그 곳에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비석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5대 장군들이 먼저 그 비석 옆을 지나가려 했지만 무엇에 막힌 듯 지나갈 수가 없다. 잠시 후 위패에서 5대 장군들이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누군가 나타났다. 흥예문 입구를 지키고 있던 무관별장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전봉준의 언덕



우리는 전봉준을 알고 있는가?

누구나 역사적 인물로서 전봉준이란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름을 아는 것과 실체를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봉준이, 온다』를 집필한 이광재 작가는 전봉준을 소설로 만나고 싶었지만 그의

이름을 아는 것과 달리 그 실체를 모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그래서 실체를 먼저 만나기로하고 서사적인 내용보다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적절한 근거를 찾아 전봉준의 생각과 삶을

추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봉준이, 온다』이다.

작가의 펜은 골목대장 ‘씨화로’에서

동학농민군 대장 ‘녹두장군’으로 교수대에

오르기까지 조선말의 최대 풍운이었던

전봉준의 삶에 다다라있었다. 그의 손을 따라

전봉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 씨화로에서 녹두장군까지

‘씨화로’란 전봉준이 소년시절 자주 불리던 별칭이다. 이는 그의 이름중 하나인 철로(鐵爐)를 우리말로 옮긴 쇠화로에서 유래한 것으로, 쇠화로에는 항상 불씨를 담아두기 때문에 씨화로라 칭했다. 아이들 무리의 우두머리 자리에는 언제나 씨화로가 있었다. 싸움을 할 때면 머리가 깨지고 코피가 흘러도 상대가 항복을 선언할 때 까지 끝없이 달려들던 그는 항상 ‘커서 이순신장군처럼 훌륭한 장수가 되겠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고 한다. 녹두장군으로서 농민군을 지휘하고 외세에 극렬히 대항하였던 그의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 전봉준의 시대

작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를 ‘만만치 않은 시대였다’고 말한다. 단순히 외세가 몰려들었다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동아시아가, 그리고 나아가 세계가 격동하고 재정립되던 시대였다.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선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문화접변현상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구의 문물을 재빠르게 받아들이고 변화에 순응했던 일본과 그렇지 못했던 세력 간의 패권이 재편되는 과정에 조선이 놓여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봉준은 동학농민군을 일으켜

변화를 거부하는 봉건사회와 외세의 침탈이라는 두 가지 억압에 정면으로 투쟁하였으며, 작가는 이것이 근대를 핑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한다. 근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투쟁 과정에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사회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건이므로 긴밀하게 연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작가의 지론이다.

## 왜 전봉준인가?

작가는 작품의 본문에 이렇게 언급한다. ‘혹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어도 역사가 가파르게 굽이치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 했을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세상에는 꼭 그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중략) 우리는 모차르트를 베토벤이라 하지 않고 유형원을 정약용이라 말하지 않는다. 인간은 예로부터 소우주로 일컬어져 왔거니와 전봉준과 똑같은 빛과 색깔로 구성된 우주는 저 태허의 공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물음에 대한 작가의 대답은 ‘전봉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준이, 온다』가 단순히 전봉준을 언행만으로 평가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그를 둘러싼 내밀한 사적 정황에서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실제 전개 상황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풍성하게 재현해냄으로써 전봉준의 얇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살살이 더듬어 가고 있다.



“만약 크게 일어날 자리가 아니면 폭삭 망해서 자손이 없을 자리를 원한다.”  
 지사를 불러 장지를 고를 때 전봉준이 한 말이었다. 지사가 이상히 여겨 연유를 묻자 한마디를 보탰다.  
 “오래도록 남의 밭에 살면서 구차히 목숨을 이어가기보다 차라리 멸족하는 것이 흔쾌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죽음은 물론이요, 멸문의 화를 각오한 사람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_P. 210

## 전봉준의 꿈

전봉준. 그것은 한 혁명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당대 민중의 또 다른 이름이며, 하나의 시대 명칭이다. 그 “전봉준 시대”가 어느 때쯤에 시작해서 어느 때에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혁명이 좌절되고, 결국 교수대에 목 매달린 채 전봉준의 삶은 마감되었으나, 그의 시대가 마감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전봉준의 육신은 죽어 땅에 뿌려졌으나, 그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숨 쉬고 있다. 그의 꿈 또한 우리 모두의 꿈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조선 말, 사회적으로 문란하고 혼란한 시기. 백성을 억압하는

봉건체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침탈하려는 열강으로부터 민권과 민족을 지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민중을 이끌었던 지도자 전봉준. 그의 좌절은 100년간 핏빛과 식민, 분단과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졌으나, “전봉준의 시대”는 다시 광복과 민주화, 그리고 생명과 평화의 전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전봉준은 여전히 싸우는 중이다. 농민들은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항상 자신들을 억압하고 굴복시키던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힘에 대항하여 최초의 승리를 거둔다. 이는 국민들에게 혁명의 유전자를 심어준 일대의 사건이었다. 이 유전자는 이후에도 부정의 시대에 거둬 고개를 들었으며, 지금도 틀림없이 우리의 안에서 또 다르게 발현될 날을 기다리며 꿈틀대고 있다. 밟아도 밟아도 되살아나는 들풀 같은 민중의 세상, 그 열매가 탐스럽게 맺힐 나라를 향해, ‘전봉준들’은 오늘도 고개를 넘는 중이다.

# 유적지를 가다

##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남동쪽으로는 기암단풍이 아름다운 내장산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북서쪽으로는 광활한 동진평야가 펼쳐진 정읍은 토지가 비옥하여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옥함은 한편으론 독이 되어 조선말 서울에는 ‘이들을 낳아 전라도에서 관직 시키는 것이 꿈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탈대상이 되어왔다.

결국 봉건체제의 부패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의 고장,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서는 당시 농민들의 울분과 한이 옷감이 느껴진다. 그곳들을 둘러보며 갑오년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무명동학농민군 위령탑





고부관아트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경칩이 지나 봄기운이 곳곳에서 밀려든다. 따사로워진 햇살에 겨우내 숨어있기 갑갑했다는 듯 어느새 가지곳곳에서 새싹들이 불쑥불쑥 솟아올랐다. 바람은 아직 찬 기운을 품고 있지만 예의 칼바람보다는 기세가 한풀 꺾여있다. 답사 다니기 좋은 날이다. 아침부터 급하게 배터리를 충전한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먼저 어느 곳으로 향할지 잠시 생각한다. 봄도 시작이고 답사도 시작이다.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곳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에 사발통문 작성지가 있는 주산마을로 방향을 잡는다.

주산마을에는 사발통문 작성지, 동학혁명모의탑,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사발통문. 그 작성지는 아주 우연히 밝혀졌다. 사발통문 서명자중 한 사람인 송국섭의 아들 송기태 씨가 마루 밑에서 찾아낸 여산 송씨 족보를 보다가 발견한 것이다. 사발통문이 발견된 송두호의 집은 사발통문 작성지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를 기리기 위해 1969년 4월 마을 어귀에 동학혁명모의탑이 세워졌다.

모의탑 옆 마을길을 따라 어느 정도 걸다보면 대외녹두회관 앞의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을 볼 수 있다. 이 위령탑은 농민군의 지도자들을 기리는 기존의 추념탑과는 달리 봉건사회와 외세를 상대로 투쟁한 이름 없는 농민군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곳에서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주최) 에서는 커다란 솔에 밭을 해두고 수십 개의 수저를 꽂아 농민군들을 위로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전봉준장군 고택



전봉준장군 단소

**고부관아터** 주산마을을 뒤로하고 고부관아터로 향한다. 고부관아는 동학농민혁명 발발의 단초를 제공한 조병갑이 군수로 부임한 곳이다. 그의 아귀(餓鬼)같은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저갱 같았다. 심지어 불효, 불목, 음행, 잡기 등 되지 않은 죄목을 가져다붙여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니 학정의 아이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장군의 지휘에 따라 고부관아로 향했고 최초의 거사인 고부봉기를 일으켰다. 현재는 관아터에 고부초등학교가 들어서있으며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사)갭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에서는 매년 고부봉기 기념제를 열어 고부봉기 재현행사를 치르고 있다.

**전봉준장군 고택** 고부관아터에서 꽤 먼 거리를 달려 전봉준장군 고택으로 향한다. 이는 전봉준장군이 실제 거주하던 곳으로 훈장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고택 앞에는 마을우물이 있는데 전봉준장군도 이 우물을 자주 이용했을 것이다.

고택은 고부봉기 이후 안핵사 이용태가 주모자들을 잡아들인다는 구실로 불태웠으나 전소되지 않아 이후 보수하였으며, 지방기념물 제19호, 사적 제293호로 지정되어 정읍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봉준장군 단소** 전봉준장군의 단소는 고택에서 50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단소란 유해가 없는 상징적인 무덤을 뜻한다. <갭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봉준장군지단>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이 단소는 천안 전씨 문중에서 동학농민혁명 60주년이 되던 1954년에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시향제(時享祭)를 지내고 있다.





말목장터



만석보터

**말목장터** 단소에서 만석보터로 가는 길목에 말목장터를 만난다. 말목장은 부안과 태인, 정읍이 맞닿아 당시 손에 꼽을 정도로 큰 장이 열리던 곳이다. 거의 모든 정보가 구전되던 갑오년에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간이었고, 고부봉기의 집결지로 말목장이 선택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동학농민군 천여 명은 고부관아로 향하기전 이곳에 집결하였으며, 1차 봉기 전까지 장두청(고부봉기 지도자들이 머물던 장소)이 있었다.

말목장터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는데 전봉준 장군은 그 감나무 아래에서 농민군들에게 고부관아로 진격할 것을 주창하였다. 그가 연설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감나무가 가지를 드리워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는 풍문이 전해져오는데 마치 정이품송이 떠오르는 재미있는 일화다. 이 감나무는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쓰러져 고사하였고, 현재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로비에 전시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감나무가 서있던 자리에는 어린 감나무가 대체 식수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만석보터** 말목장터 감나무와 눈인사를 하고 만석보터로 향한다. 만석보는 조병갑이 저지른 부패와 학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조병갑은 멸절한 민보를 허물고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만석보를 쌓아 과중한 수세를 물렸다. 도를 넘어선 부패는 결국 고부봉기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이후 새로 부임한 군수 안길수가 만석보를 완전히 혁파하여 이를 기리기 위해 이평면 하송리 이동마을에 만석보혁명파비를 세웠다. 만석보터는 전북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있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정읍일대를 순회하고 황토현으로 돌아왔다.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은 최초로 관군을 맞아 대적하였다. 농민군은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관군도 상대할 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 기세를 타 전주성까지 점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해발 35미터인 나지막한 황토재 정상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서있다. 1963년 10월에 ‘동학혁명기념탑 건립추진 위원회’의 주도로 세워진 이 탑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최초의 탑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탑에 최초로 혁명이란 단어가 쓰임으로서 이전까지 동학란, 동비의 난으로 불리던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이 혁명으로 강화될 수 있었다.

기념탑의 상부에 동학농민혁명의 근본정신인 제폭구민 보국안민(除暴救民 輔國安民)이 새겨져있는데, 보국안민의 輔가 保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保國安民)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된 글귀 또한 역사의 흔적이기 때문에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황토재를 오르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한 번 짚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구민사(전봉준장군 동상)** 황토재를 내려와 바로 아래 위치한 구민사로 발걸음을 향한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구민사는 1986년 황토현전적지 정화사업 때 지어져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들이 다수 전시되었으나, 현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으로 대부분 이전되어 기록화와 몇 가지 책자만을 전시하고 있다.

내부의 사당에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헌향을 할 수 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향에 불을 붙인 뒤 짧은 묵념을 올려본다.

사당의 바로 옆에는 전봉준장군 동상이 위치해있다. 한 손에는 격문을 들고 다른 한 손은 농민군을 독려하듯 치켜든 모습은 전봉준 장군을 그대로 옮겨온 듯하다. 그러나 前문화재청장인 유흥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부조된 농민군들이 하나같이 의연함을 찾아볼 수 없는 소풍가는 모습이라 지적하여 논란이 되었다.

장군의 동상 앞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지 사색에 잠겨본다.



구민사(전봉준장군 동상)



# 기념재단 사발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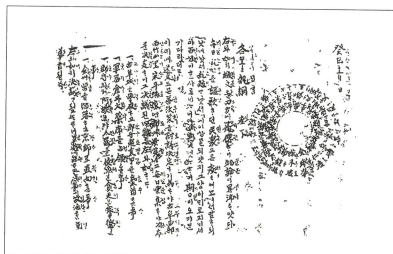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동학 농민혁명기념관 방문

지난 1월 25일  
(금)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0명  
이 동학농민혁

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한 이부영, 정대철 민주통합당 고문, 김영환, 문병호, 유성엽, 전순옥, 정성호, 조경태, 최원식,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단 교육관에서 재단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이용이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제반사항,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건립계획,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제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기념관을 관람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활동해온 재단 임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계사년 새해에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국내화·세계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발통문은...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글을  
통문(通文)이라 하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누가 주모자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동글게  
빙 둘러 가며 적은 사발통문을 돌렸다.





## 2013년도 기념관 업무추진 계획보고 실시



지난 2월 19일(화)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양광철 기념관운영부장, 이대봉 기념사업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기념관 업무추진계획보고가 있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이 진행하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념관의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하여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그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정창렬 교수 별세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선구자 정창렬 교수가 지난 1월 20일(일) 76세의 나이로 타계하였다.

1937년 만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한양대 사학과 교수, 한국사연구회 회장,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동학농민 전쟁사료총서 편집위원 등 여러 주요 직책으로 활동하였다. 고인은 특히 동학난, 동학농민운동으로 폄하되던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새롭게 부각시킨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 정신선양  
지원사업 공모 실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실시하는 정신선양 지원사업 공모가 지난 1월 28일에서 2월 4일 까지 실시되었다.

정신선양 지원사업은 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라면 어디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24개의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2월 6일(수)에 공모심사가 진행되어 총 12개 단체(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재)공갈못문화재단,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동학민족통일회,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부안문화원),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가 지원받게 되었다.



2013년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지난 2월 20일(수) 2013년 1차 운영위원회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영석 이사장(운영위원장), 김기현 위원, 성주현 위원, 이기곤 위원,

이병규 위원(연구조사부장), 이대봉 간사(기념사업부장)가 참여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회계결산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금까지 시행된 전국대회에 성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제119주년, 12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 Network Word



## 문화재청 '석대들전적지' 사적지 해제요구 거부

지난해 12월 20일(목) 장흥군에서 석대들전적지의 사적지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였다. 석대들 전적지는 1894년 12월 15일 동학농민군이 관군, 일본군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벌인 곳으로 정읍 황토현전적지, 장성 황룡전적지, 공주 우금치전적지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로 꼽힌다.

지난 2009년 5월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사적지 498호로 지정되어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장흥군에서는 석대들 전적지가 위치한 장흥읍 남외리, 충렬리 그리고 교촌리의 주민들이 사적지 주변의 개발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크라며 반발하여 주민들을 수차례 설득을 하였으나 반발이 거세지자 사적지 지정 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검토결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이유는 사적지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적지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는 곳이 많고 지정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일축하였다.

한편 장흥군 관계자는 "사적지 지정 해제 여부를 떠나 주민들을 설득해 석대들 성역화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 동학농민혁명 역사기록화 전시회 개최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2013년 1월 10일(목) 고창문화의전당 기획전시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역사기록화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고창군이 기획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제작진행을 맡았으며 권우영, 김연서, 고진오 화가가 작품제작에 참여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18점의 작품으로 기획된 전시회는 1월 30일(수)까지 이어졌다.





### 원평집강소 건물 보수를 위한 범시민모금운동 전개

김제 원평의 집강소 건물이 붕괴위기에 처해있다. 이 건물은 김덕명 장군이 도회소로 활용해 군수물자를 비축하여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준비하였으며, 고부봉기가 일어나기 직전 전봉준 장군이 이곳에 주재하며 봉기를 기도한 역사적인 장소로 추정된다.

현재 건물이 10년 넘게 방치되어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보수하려 했으나 토지 및 건물주가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매입에 대해서도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과 건물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범시민모금운동'의 전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문화재청에 '각 시군별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요청하여 부지를 매입해 관리할 계획 중이다.



### 동학역사문화연구소 개소식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는 지난 1월 24일(목) 동학역사문화연구소를 발족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생기 정읍시장, 이용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 관장을 비롯한 37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연구소는 민족사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사업,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으로 전북과학대학교 유종국 교수가 소장직을 맡게 되었다. 유종국 교수는 '우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연대기부터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예정이며 전 국민이 공감하며 계승·발전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갑상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도 '전문연구자를 비롯한 지방사학자 그리고 연구모임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며, 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구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승사업회에서는 그동안 치러졌던 각종 행사에 대한 성과와 출판물 등을 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 Network Word



##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 201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지난 2월 7일(목) 전국동학농민혁명 유족회의 제1차 정기 이사회가 천도교 수운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체 53명의 이사 중 28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대회 및 제20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산보고와 정관개정, 임원진 개편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상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 제119주년 고부봉기 기념제

고부봉기재현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길)가 주관한 제119주년 고부봉기 기념제가 지난 2월 15일(금) 이평면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제는 김생기 정읍시장,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왕재회장, 고영섭, 김규방, 박연희 정읍시의원을 비롯하여 옛 고부군에 속한 이평, 고부, 덕천, 영원, 정우, 소성, 백산면 등 7개 면의 면민 3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는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에서 사발통문 작성 재현을 시작으로 이평면사무소에서 강효숙 교수의 ‘동학농민전쟁은 실패였는가’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이어졌다. 이후 행사참여자들이 고부봉기 격문을 낭독한 후에 2개조로 나뉘어 고부관아터(고부초등학교)까지 진군하였으며 고부초등학교에서 점령 상징물을 탈취하는 것으로 고부관아 점령을 재현하였다.

김동길 위원장은 ‘정읍 이평은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봉기가 일어났던 장소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이곳에서 기념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념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선양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는 말을 전했다.



##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대회 열어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서는 지난 3월 5일(화)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신 선양대회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대봉 기념사업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최종철 사무관,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대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회장 인사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축사(기념사업부장 이대봉 대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축사(최종철 사무관 대독) 후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여식이 진행되어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이왕재 회장)이 대표로 수상하였다.

수여식 이후 박대길 강사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정신선양대회가 마무리 되고 제20차 유족회 대의원회의가 이어져 감사보고, 결산보고, 임원선출 등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은 이왕재 회장이 연임하게 되었다.



## 제2회 가로세로 녹두꽃 낱말퍼즐 정답

ㅍ	ㅅ	ㅇ	ㅅ		ㅅ	ㅎ		ㄹ
	ㅁ		ㅍ	ㄱ		ㅇ	ㅅ	ㄱ
ㅈ	ㅅ	ㅅ		ㅇ	ㄹ	ㅈ		ㄱ
ㅅ		ㅇ	ㅁ		ㅇ		ㅎ	ㅁ
	ㄹ	ㅈ				ㄱ	ㅇ	
ㅅ	ㅍ		ㄹ		ㅇ	ㄹ		ㅁ
ㅁ		ㅅ	ㅎ	ㄱ		ㅁ	ㅅ	ㅍ
ㅅ	ㅅ	ㅁ		ㅅ	ㅈ		ㅎ	
ㅅ		ㄹ	ㅇ		ㅈ	ㅁ	ㄱ	ㅁ

# 제2회 가로세로 녹두꽃 낱말퍼즐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맞춰주세요.  
정답은 47p 하단에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화관광해설사  
김수웅(金秀雄)

## 문제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항거하여 고부봉기를 일으켰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총대장으로 활동하였고 정부에 폐정개혁을 제시하였던 인물. 파란색 칸의 글자를 조합하여 이 사람의 이름을 찾으시오.

## 가로열쇠

- 1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킴. □□□□은 패망의 선봉장
- 4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떼 지어 세차게 들고일어남. 농민□□
- 7 강제 물세를 받은 □□ 군수 조병갑과 포악한 관리들을 처형하라
- 9 바닷길이 열린다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속하는 섬
- 10 고려때 정사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백관을 감찰 탄핵하던 관아
- 12 지방에서 발생하는 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
- 14 동학군을 이끌었던 김덕령장군의 생각지와 구미란 전적지가 있는 곳
- 15 임금이 조상이나 백성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 16 조선 시대 수도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의 군사. □□과 황룡천 전투
- 17 법정 이자나 보통의 이자를 초과하는 비싼 이자
- 18 욕심이 많고 포악함. 정부는 관리들의 부정과 □□을 없앨 대책을 마련
- 20 높고 험준한 고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는 태산□□과도 같다
- 22 고부봉기 후에 군수 조병갑을 체포 압송하고 후임으로 부임한 군수
- 24 자율형사립고를 줄이면?
- 26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귀중한 자료 <동학사>를 저술한 분
- 27 예전에, 벼슬아치들이 모여 나라일을 처리하던 곳. 官衙
- 29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형벌. □□를 당한 전봉준
- 30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싹을 대로 싹음. □□□□는 망국의 원인

## 세로열쇠

- 2 조선시대의 지방장관. 종2품의 문관직. 감사·도백·방백(方伯)
- 3 바른대로 말함. 네가 죄에 대해서 이실□□을 한다면, 용서해 주겠다
- 5 탈상 뒤 해마다 사람이 죽는 날에 지내는 제사
- 6 영조의 차남이며 정조의 아버지. 흥선군 이항응은 □□□□의 증손
- 8 백산대회가 열렸던 백산은 □□군에 있다.
- 10 임금이 있는 궁전을 이르던 말. 중신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다
- 11 흥선 □□□의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 프랑스 신부들이 파살되었다
- 13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용서와 사랑은 모든 종교적 교리의 □□
- 15 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속한 구실아치
- 16 유학의 경서인 사서오경을 연구하는 학문
- 17 나이가 썩 많은 늙은 사람. □□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
- 18 재물을 탐하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의 득세와 황표
- 19 KBO, 2013시즌 관중 □□목표 753만명 예상. 움직여 한곳에 집중시킴
- 21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를 사고라 하죠
- 22 김옥균 등과 개화당을 조직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정치가
- 23 정치를 잘해서 이름난 관리. 시민들을 위해 헌신봉사한 □□ 시장
- 25 양반층을 일반 평민층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범절 있는 □□ 가정
- 28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위를 맞추면서 일랑거림  
군수에게 □□하여 인민을 침해한 탐학한 구실아치를 징치할 것

# 나눔꽃



## 지역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①

NO	지역	유 적 지	주 소
1	정읍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10
		갑오동학혁명백주년기념탑	전라북도 정읍시 쌍암동 392
		고부관아터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161
		구민사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3
		동학혁명모의탑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산 15-1
		만석보터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하승리 659-3
		말목장터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191-3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618
		사발통문 작성지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562-1
		전봉준선생 고택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458-1
		황토현전적지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3
2	고창	고창읍성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산 9
		무장기포지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89
		무장읍성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56 일원
		전봉준생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59
3	김제	금구·원평도소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4-3
		김덕명장군 묘역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144
		무명농민군 묘역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산 121
4	전주	원평 구미란전투지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623-3 일원
		덕진공원 - 김개남장군추모비 - 손화중장군추모비 - 전봉준선생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1가 1314-4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사서학동 20
		초록바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 1-4
5	남원	풍남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 83-4
		남원성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85-2 일원
		교룡산기념비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251-19
		방아치전투지	전라북도 남원시 부절리 391-5
6	완주	여원치전투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읍봉 준항리 산76
		대둔산 동학농민군항쟁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15
		대둔산 항쟁전적비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23-3
		삼례봉기기념비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867-2
삼례봉기역사광장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신곡리 417-3		



# 동학농민혁명포럼

## 초대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정신으로 키우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합시다!!

### 포럼회원특전

-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 우선 참여권 부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개최 유적지답사 우선권 부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간 서적 및 각종 자료 무료제공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회원간의 발표회 및 토론회 등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기념대회 및 각종 행사 · 초대
- 문의: 063)538-2894(대표), FAX: 063)538-2893

063)538-289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  
홈페이지(www.1894.or.kr), 이메일(1894@1894.or.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